◎ 이 문서는 북한 주민을 돕고,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인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가 만듭니다. 우리는‘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시각’으로 과정공부 교과책을 공부하고 재해석하며 연구하여 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는 평화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평화예배소, 평화교육실천연구소’라는 이름을 빼고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opyleft!

“열리면 찾아가고, 막히면 연구하고”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평화예배소. 평화교육실천연구소】

1. 2018 제3기 장년과정교과 13주 차례

2. 연구 범위(Read for This Week’s Study)

3. 각국 언어별 기억절(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4. 교과 해설

5. 평화의 개념을 세우기 위한 토론

◆ 차례 CONTENTS

제 1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1. You Will Be My Witnesses—June 30–July 6

제 2과. 오순절

2. Pentecost—July 7–13

제 3과. 초기 교회에서의 삶

3. Life in the Early Church—July 14–20

제 4과.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

4. The First Church Leaders—July 21–27

제 5과. 바울의 회심

5. The Conversion of Paul—July 28–August 3

제 6과. 베드로의 사역

6. The Ministry of Peter—August 4–10

제 7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7.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August 11–17

제 8과. 예루살렘 총회

8. The Jerusalem Council—August 18–24

제 9과. 2차 선교 여행

9. The Second Missionary Journey—August 25–31

제 10과. 3차 선교 여행

10. The Third Missionary Journey—September 1–7

제 11과. 예루살렘에서 체포됨

11. Arrest in Jerusalem—September 8–14

제 12과. 가이사랴에 감금됨

12. Confinement in Caesarea—September 15–21

제 13과. 로마로 가는 여정

13. Journey to Rome—September 22–28

[이번 주 기억절 Memory Text]

사도행전 2:32, 33 [개역개정] (장년교과책에서 인용한 이번 주 한글 기억절 버전)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Acts 2:32, 33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장년교과책에서 인용한 이번 주 한글 기억절 버전)

32.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all of us are witnesses.

33. Being therefore exalted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has poured out this that you both see and hear

● 2018년 7월 14일(토) (7월 8일 일 ~ 7월 13일 금)

2018년 제3기 안식일학교 장년교과 – 사도행전

3rd Quarter 2018. Adult Sabbath School Bible Study Guide

- The Book of Acts : The Victory of the Gospel

제2과 오순절

Pentecost

◎ 연구 범위(Read for This Week’s Study)

Acts 2:1–4, John 14:16, Acts 2:5–13, Joel 2:28–32, Acts 2:22–39, Ps. 110:1–3.

행 2:1~4, 요 14:16, 행 2:5~13, 욜 2:28~32, 행 2:22~39, 시 110:1~3

TMI(Total Member Involvement)는 전 교인이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운동입니다 – ‘한반도 대변혁의 시대’에 TMI활동의 범위를 북한까지

●▲■ 연구 범위(Read for This Week’s Study)

● 행 2:1~4, Acts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3.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4.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 요 14:16, John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 행 2:5~13, Acts 2:5–13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5.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6.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m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7.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8.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9. Parthians, Med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10.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near Cyrene; visitors from Rome

11. (both Jews and converts to Judaism Cretans and Arabs--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12. Amazed and perplexed, they asked one another, "What does this mean?"

13. Some, however, made fun of them and said, "They have had too much wine."

● 욜 2:28~32, Joel 2:28–32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8.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29.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30.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31.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32.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for o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deliverance, as the LORD has said,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

● 행 2:22~39, Acts 2:22–39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22. "Men of Israel, listen to this: Jesus of Nazareth was a man accredited by God to you by miracles, wonders and signs, which God did among you through him, as you yourselves know.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25, David said about him: "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26.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27.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28.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29. "Brother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30.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31. Seeing what was ahead,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grave, nor did his body see decay.

32.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33.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34.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35.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

36.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37.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38.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39.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 시 110:1~3, Ps. 110:1–3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1. 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2. The LORD will extend your mighty scepter from Zion; you will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

3. Your troops will be willing on your day of battle. Arrayed in holy majesty, from the womb of the dawn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 기억절 (Memory Text)**

사도행전 2:32, 33 [개역개정] (장년교과책에서 인용한 이번 주 한글 기억절 버전)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2, 33 [개역한글]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2, 33 [공동번역]

32. 바로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33.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2, 33 [새번역]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2, 33 [현대인의 성경]

32.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33.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Acts 2:32, 33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장년교과책에서 인용한 이번 주 한글 기억절 버전)

32.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all of us are witnesses.

33. Being therefore exalted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has poured out this that you both see and hear

Acts 2:32, 33 [KJV, King James Version]

32. This Jesus hath God raised up, whereof we all are witnesses.

33. Therefore being by the right hand of God exalted, and having received of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Ghost, he hath shed forth this, which ye now see and hear.

Acts 2:32, 33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32.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33.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Acts 2:32, 33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32. "This Jesus God raised up again, to which we are all witnesses.

33. "Therefore having been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has poured forth this which you both see and hear.

使徒行傳 2:32, 33 [新改譯]

32. 神はこの イエス 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私たちはみな， そのことの 證人です．

33. ですから， 神の 右に 上げられた イエス が， 御父から 約束された 聖靈を 受けて， 今あなたがたが 見聞きしているこの 聖靈をお 注ぎになったのです．

使徒行傳 2:32, 33 [口語譯]

32. この イエス を， 神はよみがえらせた． そして， わたしたちは 皆その 證人なのである．

33. それで， イエス は 神の 右に 上げられ， 父から 約束の 聖靈を 受けて， それをわたしたちに 注がれたのである． このことは， あなたがたが 現に 見聞きしているとおりである．

使徒行傳 2:32, 33 [新共同譯]

32. 神はこの イエス を 復活させられたのです． わたしたちは 皆， そのことの 證人です．

33. それで， イエス は 神の 右に 上げられ， 約束された 聖靈を 御父から 受けて 注いでくださいました． あなたがたは， 今このことを 見聞きしているのです．

**使徒行傳 2:32, 33 [简体, Simplified]**

32. 这耶稣，神已经叫他复活了，我们都为这事作见证。

33. 他既被神的右手高举，（或作他既高举在神的右边）又从父受了所应许的圣灵，就把你们所看见所听见的，浇灌下来。

**使徒行傳 2:32, 33 [繁體, Traditional]**

32. 這耶穌、　神已經叫他復活了、我們都為這事作見證。

33. 他既被　神的右手高舉、〔或作他既高舉在　神的右邊〕又從父受了所應許的聖靈、就把你們所看見所聽見的、澆灌下來。

HƏVARİLƏRİN İŞLƏRİ 2:32, 33 [Azerbaycan]

32. Allah bu İsanı ölümdən diriltdi və hamımız buna şahid olduq.

33. Allah Onu ucaltdı və sağ əlində oturtdu. O, vəd edilən Müqəddəs Ruhu Atadan götürüb sizin görüb-eşitdiyiniz kimi üstümüzə tökdü.

Деяния 2:32, 33 [Russian]

32. Сего Иисуса Бог воскресил, чему все мы свидетели.

33. Итак Он, быв вознесен десницею Божиею и приняв от Отца обетование Святаго Духа, излил то, что вы ныне видите и слышите.

◆ 사도행전(使徒行傳) (使 하여금 사/부릴 사, 보낼 시徒 무리 도行 다닐 행, 항렬 항傳 전할 전)

신약성서(新約聖書) 27권 중(中)의 다섯 번째 책으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의사(醫師)가 쓴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1)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이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본서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 온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으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2) 본서는 이 엄청난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성령행전'이라 불리기도 한다.

▲ 사도(使徒) : apostle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문자적으로 ‘왕이나 권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송 받은 자’ 란 의미를 가진다.

1)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하신 구약시대의 모세, 엘리아, 등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현재도 주의 복음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파견된 주의 종들도 사도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의 12사도 및 바울 사도와 유사한 권위를 가진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전도자 바나바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했다.

2)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볼 때 사도란 예수로부터 직접, 초대교회의 설립자로 임명받은 예수 생전의 12사도와 예수 승천 이후의 바울 사도만을 가리킨다(눅 6:13; 행9:15).

△ 사도의 7대 사역 : 1)복음전파 2)예수의 증인 역할 3)교회설립 4)말씀교육 5)교회감독 6)성도에 대한 권징(勸懲) 7)성경기록

※ 권징(勸懲) : 권선징악(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 행전(行傳) : 영문 성경에서 사도행전(Acts)의 온전한 제목은 “Acts of the Apostles”

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사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란 의미

1) Ellen G. White. 시대의 소망(Desire of Ages)

[http://www.egw.or.kr/EGW/Read.php?tn=EGW\_BOOK\_DA&Gt=cn&Gv=4&Gbn=-1](http://www.egw.or.kr/EGW/Read.php/?tn=EGW_BOOK_DA&Gt=cn&Gv=4&Gbn=-1)

2) Ellen G. White. 각시대의 대쟁투(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http://www.egw.or.kr/EGW/ReadCategory.php?tn=EGW\_BOOK\_GC](http://www.egw.or.kr/EGW/ReadCategory.php/?tn=EGW_BOOK_GC)

3) Ellen G. White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The Conflict of the Ages in the Christian Dispensation“

<http://www.whiteestate.org/books/gc/gc.asp>

4) 『The Great Controversy』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Great_Controversy_(book>)

5) 재림교회 E. G. 화잇 연구센터

[http://www.egw.or.kr/EGW/?M=R](http://www.egw.or.kr/EGW//?M=R)

6) 대총회

<https://www.adventist.org>

7) 북아태지회

<http://www.nsdadventist.org>

제3기 제2과

오순절(五巡節)

Pentecost

[첫째 날] 7월 8일(일) 성령의 강림. The Coming of the Spirit

[둘째 날] 7월 9일(월) 방언의 은사. The Gift of Tongues

[셋째 날] 7월 10일(화) 베드로의 설교 Peter’s Sermon

[넷째 날] 7월 11일(수) 높임을 받으심. The Exaltation of Jesus

[다섯째 날] 7월 12일(목) 첫 열매들. The Firstfruits

[여섯째 날] 7월 13일(금) 더 깊은 연구를 위해[심화학습/ 발전학습]. Further Thought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 토의를 위하여 이 질문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이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만들어 토의해보세요.

➊ 오순절의 경험 중 현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재현될 수 있고, 무엇이 재현될 수 없습니까?

➊ What of Pentecost can the church expect to experience in its

life today? What is repeatable, and what is not?

➋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호사들보다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십니다.” 그대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➋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오순절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어떠했든지 간에 메시아가 36더 깊은 연구를 위해7월 13일(금)핵심적인토의를 위해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적인 탐지에도 잡히지 않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바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최근 유행하는 가르침들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왜 성경의 가르침에 먼저 충실해야 할까요?

❸ 행 2:38은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기 전에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는 뜻입니까? 그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❸ Acts 2:38 talked about the need of baptism. Does this mean

that anyone who believed in Jesus but died before being baptized

must, of necessity, be lost? Justify your answer.

제3기 제2과

오순절(五巡節)

Pentecost

서론 : 문제제기 및 문제의식

1.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오순절’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떠올린다. 한국교회의 부정적 또는 기형적 측면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치유 은사’는 소위 ‘값싼 은혜’ 논쟁과 기독교 내에 이단 논쟁과 연관되어 있다.

2. 우리 시대에 신앙인의, 믿음의 공동체(community)가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값싼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이고.도 진정한 능력을 강조하는 ‘평화의 성령’의 개념이 재림신앙공동체에 필요하다. 아니, 이 ‘평화’와 ‘성령’의 연결이야말로, 21세기 기독교신앙의 의제를 선점하는 길일 것이다.

3. 1) 성령을 외국어 능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만 이해하는 공동체의 인식, 2) 치유가 없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이 느끼는 열등감, 3) 1) 2)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그 반대 급부적인 입장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우매화(愚妹化)함. 우리는 1) 2) 3)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4. 특히 한국과 같은 이념 과잉 사회에서 교회 지도자는 신자공동체를 우매화하는 교회 운영과 기형화된 복음을 전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5. 1945년,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장군(1880-1964)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을 한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요, 그 당시를 넘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낸 연설이라 할 수 있다.

6. 진정한 성령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최근 이란 소녀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재림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긍정적인 예.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15,854명 ]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3:45 현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099>

재림교회 송++ 목사에게 신자가 보낸 카톡 문자  
  
““목사님, 정원이 반 아이의 사연인데요...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부모는 난민으로 인정되었는데, 아이만 출국조치 될 상황이고,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니 반은 물론, 학교 전체가 초상집이더라구요...... 한 번 읽어봐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릴게요. ”

오늘 아침 받은 카톡입니다.

집사님의 따님과 한반인 이란 친구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온 가족이 이란에서 왔고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부모는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중3아이는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며 부결되었습니다.

출국날자만 다가오는데 이대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한 수 많은 기독교인들처럼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잠깐 시간을 내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날] 7월 8일(일) 성령의 강림. The Coming of the Spirit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행 2:1~3)

1.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3.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1. 사도행전 2:1~3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순간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2. 사도행적 37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歎願)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 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이 말씀에서는 1) 부조들, 2) 예수 그리스도, 3) 그분의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해야함을 깨닫게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며,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나의 간구는?  
  
3. 제자도의 순서

1) 모여서 성도의 간구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고

2)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공공 장소로 나아감 → 공공 장소로 나아감.

※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 → 2장 1~3절의 성령의 임하심 → 성령 받은 이들이 공공장소로 자리를 옮겨 성령의 역사로 강렬한 복음전파의 사도의 역할을 함

4. 아래 문항은 20세기 대한민국 후반기 역사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묻는 시험이다. 문항 내용 중 ‘교육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로 바꾸어 답변하시오.

교육도 역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데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를 교육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철저한 반(反)북한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데 주력하였고, 북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혁명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주력하였다. 남북한의 교육을‘교육의 본질’이라는 면에서 비판하시오.

5.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통해 복음전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민족의 불침례’(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의가 있으면 토론)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6.25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성령의 침례 : 민족의 불침례 6.25 = 공공장소로 자리를 옮기게 됨 : ( )

[둘째 날] 7월 9일(월) 방언의 은사. The Gift of Tongues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Acts 2:4)

1. 사도행전 2:4은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놀랍고 신비하다. 그러나 방언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들(gifts) 중 하나이다. 성령의 은사의 다양한 예는? 예언(행 11:28), 이상을 봄(행 7:55), 영감적인 설교(행 2:8, 28:25), 치유(행 3:6, 12, 5:12, 16), 봉사할 수 있는 역량(행 6:3, 5) 등

2. 언어는 문화가 소통하고 유통하는데 있어서 제1의 장벽이다. ‘성령의 선물’은 문화적 장벽(cultural barriers)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서 넘어야 할 문화적 장벽의 예를 들고, 대한민국에서 200만 명이 넘은 외국인과 함께 사는데 있어서 이전과 어떠한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까?

3. 1세기 무렵 세계 유대인 인구는 약 8백만에서 1천만 명 정도. 그중 최대 60퍼센트는 유대 땅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산.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은 당시 유대인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 세대를 달리하며 각 지역의 변형된 언어(방언)와 예루살렘의 언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어떤 이들은 조롱(嘲弄)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행 2:13)라는 성경절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

4.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선교현장에서 방언의 은사가 역사한 사례들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

5. 우리말을 쓰면서도 그대는 어떠한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 말을 하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어휘력과 뉘앙스(말의 무늬)와 관계가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의 표출이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개성과 성정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적대적이며 배려가 부족한 모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가 만들어 내는 좁은 인식의 틀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곧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선물’을 제한하고 왜곡한다.

[셋째 날] 7월 10일(화) 베드로의 설교. Peter’s Sermon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Eleven,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1.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임을 구약성경의 어느 선지자를 인용하여 설명하는가? 요엘

2. 그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욜 2:28-32)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베드로는 "이것은...그것입니다"(16절)(이것이 요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것이다)(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라는 말로 그의 설교를 시작한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목격한 '이것;(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가는 이 예언이 약 800년 전에 주어졌지만, 현재형 동사(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를 사용함으로 그 예언이 불변의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베드로 : “말세에”(사도행전 2:17), 요엘은 “그 후에”(요엘 2:28)

베드로는 요엘 2:28에서 '그 후에"라고 기록한 것을 의도적으로 "말세에'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그가 성령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세"는 메시야가 오실 때를 의미했다(사 2:2; 미 4:1).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성령께서 오신 시대에 적용하고 있다. 베드로는 말세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은 신약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그는 이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21). 요엘은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드로는 여기에 언급된 "주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죄인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5. 사도행전 2:22~32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요점은 ‘부활(復活, resurrection)’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신분뿐 아니라 기독교의 기별을 위해서도 확실한 증거이다.

[넷째 날] 7월 11일(수) 높임을 받으심. The Exaltation of Jesus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1. 사도행전 2:33-36.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은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베드로의 논증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그러한 위치에 오르셨기 때문이다. → [key point]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높게 들리실 수 없었고(요한복음 17:4-5), 그분이 높게 들리실 수 없었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다(요한복음 7:39).

2.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삶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성령의 권능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고백했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권능은 요란해서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듯이, 성령의 권능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섯째 날] 7월 12일(목) 첫 열매들. The Firstfruits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3:38)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1. 용서(容恕)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은? 믿음과 회개. 믿음과 더불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침례는 회개의 표현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도덕적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이 되었다.(행 2:38, 22:16; 딛3:5-7 비교)

2. 오순절에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1) 죄의 용서, 2) 개인의 성장, 3)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특별히 4) 선교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았다. The people at Pentecost were offered not only 1) forgiveness of sins but

also the fullness of the Spirit for 2) personal growth, 3) for service in the

church, and 4) especially for mission.

3.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술담배 안하고,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십일금 구별하여 드리고, 죄 안 짓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런 평가도 많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이 매우 평범했다는 겁니다. 규칙적이고, 정직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교회에도 자주 가는 매우 순응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의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험해야 하는가?

▲ EBS 다큐멘터리 <시험> 제1부 44분 58초 ~ 46분 1초

https://www.youtube.com/watch?v=QcPwClfdkmk

4. Jtbc 손석희가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돔 헬더 까마라 브라질 대주교의 말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한다. 하지만 가난을 낳는 구조를 바꾸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 한다."은 우리 한국 사회를 잘 드러내는 말이다. 까마라 주교의 이 말은 재림교회의 지난 역사에서의 입장에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가?

[여섯째 날] 7월 13일(금) 더 깊은 연구를 위해[심화학습/ 발전학습]. Further Though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 부활 → 승천과 권능의 약속 →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하심 → 복음 전파

●▲■ 성령의 권능을 우리 국가 사회 인류적 차원에서 실천 적용하는 데, TMI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16~20절]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

8.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공동번역)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 평화의 개념을 세우기 위한 토론 ]

[2018년 7월 14일(토)] 이번 주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

신데탕트 무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18년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의 의미

-데탕트 역사로 보는 북미정상회담의 기회와 위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540.html#csidxd41f99641a27d21b784e3d07c4221fb](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540.html/#csidxd41f99641a27d21b784e3d07c4221fb)

-데탕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해방 이후의 역사를 재림교회는 어떻게 정의하나?

-현 <한반도 대변혁의 시대>에 재림교회는 지나온 시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할까? 우리 교회는 20세기 한반도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였나?

-트럼프와 힐러리 중,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서 힐러리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한반도 정세에 더 유리했을까? 가다피가 살해되었을 때, 미국과 가다피 관계에 대한 서방 언론의 문제의식 중 미국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미국 정치계의 인사이드들의 인식의 문제점.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현재 상황.

-좌충우돌, 노이지마케팅 트럼프 스타일의 문제점. 끊임없는 거짓말 문제를 정치적 수사로 볼 것인가의 문제. 정치 문제를 경제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의 한계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연계성. 한반도 해빙무드에 미치는 트럼프의 경제마인드의 역설. 어느 나라건 경제문제와 연결되는 것.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수유 권장 결의안에 반대한 트럼프 정부.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예측.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

-트럼프의 노벨상 가도의 아킬레스건은?

-미국 경제가 호황인게 트럼프의 경제 정책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은 아니라고 함. 그러면 미국경제 호황의 이유

-집권 중반을 넘어서는 트럼프를 공화당은 정식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집권 초기부터의 트럼프의 전략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집권 후기와 재선에 도움이 되는가?

-손해 안 보는 트럼프와 대북비핵화협상의 속도 그리고 트럼프의 레임덕은?

[2018년 7월 7일(토)]

*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북미고위급회담으로서 북미담판 '2라운드' 시작. 미국은 '核신고 리스트' 합의 목표. 북한은 고급 정보 주기 전 무조건 정보만 전달하기보다는,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얻어내기를 원함.
* 마이크 폼페이오, 1박2일 방북 일정 마치고 日 도쿄 도착.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동행 기자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비핵화 등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a good deal of time)"을 할애했다고 말함. 그는 "논의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덧붙임. AP통신은 폼페이오가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
* 김영철 부위원장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나 역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신경전의 의미. 협상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의미한다고 봄. 협상 전제에 대한 투명한 입장을 위한 양측의 신경점. '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들을 구성하기로.
* 마이클 모렐 전 부국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의 신고 시간표를 북한으로부터 수령해 귀국하길 바란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의 수량은 얼마인지, 생산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과학자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해 완전하고 진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해체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합의를 지키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가 마지막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후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함.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고, 북한의 경제지원을 받는다는 것의 선후,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정보 전달 과정의 선후를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노력.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의 역사 보상이 이루어질까? 북미 핵협상과 맞물려 진행 예상
* 문재인-김정은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

[2018년 6월 30일(토)]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주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미회담의 실패를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향후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북한 경제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사업과 이를 통한 남한 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기와 도로
*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은 향후 집권 후반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는 북미, 남북, 북중,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북일 협상의 전제조건과 해결 로드맵은 어떻게 될까요?
* 한러 경제협력에서 러시아 동부 개발 양상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2018년 6월 23일(토)]

* 남북,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 합의에는 실패. - 북한은 우리와 상황이 다름. 북한 측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은, 3차 방중의 의미.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국 경제모델 벤치마킹
* 文대통령 "한러 FTA, 조속한 시일 내 체결" 한-러 '혁신플랫폼' MOU 체결 예정…靑 "러시아 기초기술과 한국 ICT 결합"의 의미
*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 "한반도 역사적 대전환 시기" - 전기, 천연가스 등 한북러 에너지 교류. 탈원전

- 북한의 주체사상의 역사는 북한사회 이해의 핵심

[2018년 6월 16일(토)]

-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면 합의 가능성

* 트럼프가 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문재인 대통령 조심스레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 war game, 김정은 시진핑이 말하는 war game → Key Resolve, Team Spirit, RSO......
* 한미 전략자산. 그 안에 들어 있었던 비평화적 war game
* 우리의 일상이 살벌하게 드러나는 전쟁, 그 끝을 향한 대장정의 첫 발자욱

[2018년 6월 9일(토)]

-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 북한, '리비아 방식 비핵화‘ 거부

* 북미 싱가포르 회담 전망

[2018년 6월 2일(토)]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김영철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personally handwritten letter)를 전달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 김정은의 친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리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편지”하라고 한 말의 응대)
* 트럼프가 원화는 ‘일괄 타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각각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 : 리비아식 모델 발언 1

펜스 부통령 : 리비아식 모델 발언 2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 리비아식 모델 발언 3

-다시 ‘페리보고서’로. “미국은 북한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

-위협적이고 변칙적인 트럼프를 북한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의 죽음의 역사도 있는데...

-다시 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풍경... 김영철과 트럼프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대담 후, 트럼프는 6.12 북미정상회담은 열린다고. 트럼프의 말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2018년 5월 19일(토)]

-현 남북 상황과 동북아의 정치 관계 지형이 트럼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임동원 : 페리보고서 = 문재인 : 트럼프 전략 전술

1) 정권이 바뀔 때 미국의 워싱턴 정가의 풍경

2) 정권의 전략 씽크탱크들의 이동과 초점

3) 페리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4)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로드맵 문서를 주었나?

5) 페리보고서와 트럼프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北核 문제, 리비아식 모델로 풀어야" 발언의 의도와 파장

[2018년 5월 12일(토)]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6월 12일(화) 싱가포르로 정해진 까닭은?

-GM 군산공장 폐쇄 위기와 트럼프의 GM 언급. 한국정부에 대한 사실상 주문(注文).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부-GM 7조7000억 자금 투입 결정’, ‘GM경영 견제장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식 WMD(대량살상무기) 핵폐기 예: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과학자

-북핵 문제에 대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식 해결 언급과 트럼프의 좌충우돌 발언은 충돌하는가?

-북핵 폐기 기간과 트럼프의 임기는 일치하는가?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 북-미 핵협상에 약 될까 독 될까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수요일) 후의 남북관계가 보인다? 임동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장의 대북관계 개선 3대 원칙은 재림교회의 선교전략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전략은?

[2018년 5월 5일(토)]

-임동원 : 페리보고서 = 문재인 : 트럼프 전략 전술

-페리보고서와 트럼프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트럼프는 문재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미국 무기 최대 수출국인 대한민국의 평화무드와 북한 개발을 맞바꿈.(이번 주 미국방위산업체 주가 하락)

[2018년 4월 28일(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 사회와 역사의 이해>

-북한은 몇 개의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은?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으로는 한국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강은 한강, 그러면 한강에 해당하는 북한의 강은? 대동강

-부산의 도로와 평양의 도로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바둑판 모양의 평양의 도시 구획을 볼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2018년 4월 27일(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일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한제재의 한계 속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끌어 낼 회담 성과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미국이 원하는 것은?

[2018년 4월 21일(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 사회와 역사의 이해>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북한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 )년대 후반부터였나? 1980(특별히 1980년대 어떠한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었나?)

-남북한의 평화공존(平和共存)과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과 북이 합의 발표한 3대 통일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소 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한 기업인이 소 떼를 몰고 간 소 떼의 수는? 1001마리

-[우리 안의 상반된 두 태도] 서로 화합(和合)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반대로 ‘주체의 나라’로만 인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북한의 모습 그 자체를 사실그대로 인식하고, 그 내면을 이해하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왜 왜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놓고 남북 간의 대립이 첨예했을까요? 북방한계선은 어떻게 그어진 것일까요?

[2018년 4월 14일(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 사회와 역사의 이해>

1. 2018년 4월 27일(금)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2.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단장에 김대중 정부 때 남북관계를 총지휘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자문위원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동원 장관의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임동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장의 큰 그림 세 가지는?

1) 집권 ( )에

2) 압도적인 ( )로

3) ( )인

3. 임동원 전 장관이 2012년 싱크탱크 30여 명과 함께 미국에서 북한에서 온 관계자와 당시 미국 정부 대표와 남북관계 접근 원칙으로 나눈 3대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4. 남북정상회담 후, 6.13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선거 결과 예측과 향후 정부의 대북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全員ぜんいんが同おなじように考かんがえているときは、誰だれも考かんがえていない。(アルベルト・アインシュタイン)

◎ 이 문서는 북한 주민을 돕고,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인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가 만듭니다. 우리는‘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시각’으로 과정공부 교과책을 공부하고 재해석하며 연구하여 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는 평화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평화예배소, 평화교육실천연구소’라는 이름을 빼고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opyleft!

“열리면 찾아가고, 막히면 연구하고”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평화예배소. 평화교육실천연구소】

[ 함께 읽기 ]

타임(TIME) "한국 극우성향 기독교도들,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

입력 2018.04.27. 16:48

<https://v.kakao.com/v/20180427164831432>

201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5?pageid=6&uid=4741&mod=document](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5/?pageid=6&uid=4741&mod=document)

文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 이정표 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51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513)

“아버지가 또 태극기집회에 가셨다” 가족갈등과 노인소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7154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7154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유엔보고서 "北 1000만 명이 영양부족"

[다른백년 칼럼] 북한의 실태와 지원의 긴박함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3141](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3141)

[세상읽기] ‘한반도 운전자론’ 성공하려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62057025&code=990100#csidx42d5f9aee5d4b078af8beb980f860e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62057025&code=990100/#csidx42d5f9aee5d4b078af8beb980f860ee)

[커버스토리 – 죽음교육] ‘상실을 이기는 지혜’ 죽음학습도 생애주기별로 해야 효과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70600005&code=940100&sat\_menu=A07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70600005&code=940100&sat_menu=A070)

철학이 추방한 웃음, 사랑한 웃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36434.html?\_fr=mt3#csidx77fccec5b1d85d9a2d097d543117be1](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36434.html/?_fr=mt3/#csidx77fccec5b1d85d9a2d097d543117be1)

[사설] 김정은·트럼프, 역사를 바꾸는 정상회담을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092030005&code=990101#csidx00032b2eefb291aa982baed29f3345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092030005&code=990101/#csidx00032b2eefb291aa982baed29f33459)

북한-미국 '역사적 도박', 어떻게 볼 것인가?

[기고]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운동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 간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566](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566)

전쟁위기→북미회담 대반전 ‘격변의 68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5452.html?\_fr=mt2](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5452.html/?_fr=mt2)

김정은 북한노동당 최고책임자

<https://namu.wiki/w/%EA%B9%80%EC%A0%95%EC%9D%80>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서평] 레이코프가 다시 들려주는 은유와 프레임의 개념 전쟁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18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183)

지금, 한국의 보수를 생각할 때

[최재천의 책갈피] <보수의 정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712](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712)

위에 있는 권세(롬 13장) 바르게 이해하기 - 오해가 많은 로마서 13장을 '의도에 맞게' 이해하자.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9](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9)

[기독교의 공공성]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1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시리즈 8

<https://brunch.co.kr/@rothem/410>

존 스토트·톰 라이트가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0154/20161211/존-스토트·톰-라이트가-말하는-위에-있는-권세에-복종하라.htm>

볼턴이 북미회담 깨려고 일부러 북한을 자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88d75e4b09578259eda1c>

[ 함께 시청하기 ]

지식채널e - Knowledge of the channel e\_ 그가 유죄인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IaEl07220us](https://www.youtube.com/watch/?v=IaEl07220us)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https://www.youtube.com/watch?v=k7GUB\_df6l8](https://www.youtube.com/watch/?v=k7GUB_df6l8)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_인문학 뇌 만들기 안나강사 #83.힐링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eBbYVyAwBQo](https://www.youtube.com/watch/?v=eBbYVyAwBQo)

'유창선의 인문학동행Ⅱ' 한나 아렌트 읽기

[https://www.youtube.com/watch?v=Od5eG7n6pw8](https://www.youtube.com/watch/?v=Od5eG7n6pw8)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악의 평범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생각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법률방송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4ZHSqAfTB18](https://www.youtube.com/watch/?v=4ZHSqAfTB18)

[1분독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66zWsoYbLIo](https://www.youtube.com/watch/?v=66zWsoYbLIo)

스탠리밀그램의 실험 복종

[https://www.youtube.com/watch?v=aH0ahfOaZ9M](https://www.youtube.com/watch/?v=aH0ahfOaZ9M)

밀그램의 복종실험 EBS다큐

[https://www.youtube.com/watch?v=UpIDjepjTjM](https://www.youtube.com/watch/?v=UpIDjepjTjM)

지식채널e - Knowledge of the channel e, 환상적인 실험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tG56d9q7bkY](https://www.youtube.com/watch/?v=tG56d9q7bkY)

지식채널e - Knowledge of the channel e, 환상적인 실험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y\_ZoavvPW5o](https://www.youtube.com/watch/?v=y_ZoavvPW5o)

제주 4.3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제주_4·3_사건>

제주 4.3 사건 제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풀영상)｜특집 SBS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aQp96owbrMs](https://www.youtube.com/watch/?v=aQp96owbrMs)

인기 급상승 동영상 #7

[설민석 KBS TV 역사특강] 2018 제주 4.3사건 70주년, 우리가 몰랐던 제주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UMCw0ZgUYms](https://www.youtube.com/watch/?v=UMCw0ZgUYms)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회 제주 4.3사건 (1999. 09. 12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sOjvDMq\_vxQ](https://www.youtube.com/watch/?v=sOjvDMq_vxQ)

말(言)에 대한 金言 모음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9](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9)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4가지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PlqNoiws9c](https://www.youtube.com/watch/?v=ePlqNoiws9c)

[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평화의 담론 ]

세월호 4주기, 부모가 눈물로 쓴 110편의 편지를 읽다

[프레시안 books] <그리운 너에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607](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607)

타임(TIME) "한국 극우성향 기독교도들,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

입력 2018.04.27. 16:48

<https://v.kakao.com/v/20180427164831432>

데탕트 역사로 보는 북미정상회담의 기회와 위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540.html#csidxd41f99641a27d21b784e3d07c4221fb](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540.html/#csidxd41f99641a27d21b784e3d07c4221fb)